



문신제거 탁월한 '피코슈어레이저'

뷰티스 맑은피부과 신삼식 원장

피부상처·부작용 최소화 2~5회 시술로 '끝'



신삼식 맑은피부과 원장이 눈썹 부위의 문신을 피코슈어레이저로 제거하고 있다.

현대의 젊은이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출한다. 헤어스타일에서부터 패션까지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 끝까지 모두가 10점 만점에 10 점이어야 인정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특히 최근 문신이 일종의 패션 트렌드로 여겨지고 있는데, TV속 유명 연예인이나 아이돌 가수들이 몸에 새긴 문신을 보고 이것을 따라 하려는 일반인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문신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아이টে็ม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에게 문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시켰던 계기가 있다면 2002년 월드컵을 꼽을 수 있다. 당시 무척이나 열광적이었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거리응원으로 세계를 두 번 놀라게 했던 우리나라는 얼굴에 태극기 문양의 페인팅을 하거나 신체 곳곳에 '붉은 악마'를 상징하는 해나, 바다 페인팅 등을 통해 열정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의 유명 축구선수들이 잘 보이는 신체 부위 곳곳에 문신을 하고 나타나면서 문신이 자신의 개성을 강조한 뚜렷한 아이টে็ม이라는 인식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화는 점차 발달해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문신의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해져 자신에게 의미 있는 글귀를 새겨 넣는 레터링이나 식물성 염료를 사용해 단기간 동안 문신처럼 지속되는 해나 등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아예 영구적으로 문신을 새기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인식 바뀌었지만, 여전히 부정적 시선 강해=과거 문신을 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문신 자체가

색소치료·모공개선 효과

비용·고통 부담 훨씬 줄어

전문적 정확한 진단은 필수

신체에 변형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를 소중히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것이 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문신은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나 젊은 시절 한 순간의 판단으로 시행한 신중하지 못한 문신이 시간이 흘러 취업이나 결혼을 앞두고거나 공중 목욕탕 갈 때, 아이들 교육적 측면 등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큰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이를 지우려는 사람들도 역시 비례해 늘고 있는 실정이다. 흔히 문신은 새기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과거에는 흔적 없이 문신을 지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시간과 경제적인 비용의 부담감, 뒤따르는 고통 등 문신제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문신제거에 탁월한 '피코슈어레이저'=기존 문신제거에 쓰이는 Q스위치 레이저의 효능에 대한 연구에서 피부전문가인 날디 박사는 "문신을 하게 되면 종종 후회를 하게 된다. 미국 청소년 중 28%는 문신을 한 뒤 첫 해 안에 문신을 것을 취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10여년 전에 Q스위치 레이저가 도

입돼 수술 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왔지만 궁극적으로 문신의 임상적인 결과는 환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에는 이런 문신제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기술의 발전을 통해 문신제거에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는 기기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 중심에 바로 '피코슈어레이저'가 자리하고 있다.

피코슈어레이저는 최근 국내에 도입된 레이저장비로써 기존 문신이나 색소질환에 사용되던 레이저 기기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색소 분자를 제거할 수 있고, 피부 손상의 최소화화 고통의 감소 그리고 부작용이 줄어든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광주 뷰티스 맑은피부과 신삼식 원장은 "피코슈어레이저를 통해 기존 장비로 10여회 이상의 치료로 볼 수 있던 효과를 약 2~5회 만으로 동일하게 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최근에 문신염료가 기존 레이저로는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색소에도 효과가 빨라서 문신제거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색소치료나 기미치료, 모공과 탄력, 피부톤 개선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문신이나 타투를 통해 개인의 개성과 자신감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시점에, 신중하지 못한 판단과 한 때의 호기심으로 새겨진 문신이 시간이 지난 후 큰 고통과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문신제거의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은 한번쯤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고혈압·당뇨 환자 복용약 미리 준비

3세 이하 아동 멀미약 먹이지 말아야

피서철 필수 상비약·건강관리 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서철을 맞아 여행시 상비약 준비 및 보관 요령, 건강한 여름나기 요령 등을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여행용 상비약은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잘 확인 후에 사용하도록 해야한다.

▶여행용 상비약=여행용 상비약은 10가지 종류로 해열·진통·소염제, 지사제·소화제, 종합감기약, 살균 소독제, 상처 연고, 모기 기피제, 멀미약, 일회용 밴드, 고혈압, 전신약 등이다.

고혈압, 당뇨, 천식과 같은 만성질환자는 복용 중인 시 질환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여행 전 의사와 약사 상담을 통해 필요량을 준비하도록 한다.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여행지에서 물이 바뀌어 급성 설사, 소화 불량 등으로 배가 아픈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지사제, 소화제를 준비하고 어른 지도 아래 용법·용량을 지켜 복용하도록 한다.

▶멀미약 주의=멀미는 외상이 발생하면 살균소독제와 연고로 상처를 소독해 추가 감염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나, 만약 연고 사용으로 인한 발진 등 과민 반응이 생길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한다.

▶상비약을 원래 용기에서 덜어 다른 용기에 담아 가져가면 오인·혼동할 수 있고,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삼가야 한다.

▶3세 이하 멀미약 금지=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진정제 등을 복용중인 사람은 멀미약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멀미약을 먹이지 말아야 한다.

또한, 녹내장, 배뇨장애, 전립선비대증이 있는 사람이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압이 높아지거나 배뇨장애 증세가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멀미약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알약이나 마시는 약은 승차 30분에서 1시간 전에 미리 복용하고, 검은 멀미가 나기 시작할 때 씹다가 10~15분

후에 버리도록 한다.

특히, 패취제의 경우 반드시 1대만 붙이고 아동이 끝나면 즉시 떼어낸 후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한다. 어린이는 반드시 어린이용 패취제를 사용하되, 8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모기 기피제 사용 후 반드시 씻어야=피서지나 야외 활동 시 자주 이용하는 모기 기피제는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이나 곤충의 후각을 마비시키는 성분을 함유해 모기가 무는 것을 막아주는 제품으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단시간 야외활동에는 낮은 농도 제품을 선택해 필요시 반복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피부나 옷 위에 사용 가능하지만 옷 안쪽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고 옷이나 양말 등에 뿌린 경우에는 다시 입기 전에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눈이나 입 또는 상처부위, 햇볕에 탄 부위에는 바르지 말고 특히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에는 어른 손에 묻혔다가 발라주며 어린이 손, 눈, 입 주위에 바르지 않도록 한다. 외출에서 돌아오면 모기 기피제를 사용한 부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제모제 사용 후 일광욕 삼가야=제모제 사용 후 바로 일광욕을 하면 광(光)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제모제 사용 후 최소 24시간 이후에 일광욕을 해야 한다.

또한 제모제의 주요성분인 티오글리콜산은 발진,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고, 테오드란트, 향수 또는 수렴화장품(Astringent)에 함유된 알콜 등이 피부 자극 및 발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의약품용 제모제에 대하여 '천연', '자연' 등을 표방하는 것은 거짓광고에 해당하며, 흑시라도 부작용이 없거나 적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천연' 등을 표방하는 제품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꽃과 새, 도자기들로 쉼을 품다

전남대병원 갤러리 8월 한달 서양화가 김종국展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직무대행 김윤하)이 서양화가 김종국씨의 작품 전시회를 8월 한 달간 전남대병원갤러리에서 갖는다.

‘(향)·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꽃과 새, 도자기를 소재로 한 작품 20여점이 선보인다. 이번 전시 작품들은 배경없이 세 가지 소재로만 표현되어 있는데다 여백의 미까지 살려 마치 동양화 화조도를 연상케 하는 서양화의 색다름을 감상할 수 있다.

작가는 꽃을 통한 내면의 아름다움, 한 쌍의 새를 통한 행복 그리고 도자기에 소박함과 진밀감을 담아 외적인 화려함 보다는 내적인 진정성을 표현하고자 했다.

조선대학원 순수미술과 서양화를 전공했던 김종국 작가는 현재 한국미술협회·한국박물관협

회 한국학예연구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프랑스 르 살롱 세계공모전·대한민국미술대전·광주시미술대전·전남도미술대전 등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한편 전남대병원 갤러리는 지난해 1월부터 지역 유명작가들의 작품 전시회를 통해 환자들과 지역민들에게 나눔의 공간이자 휴식의 공간이 되고 있다.

김윤하 병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치료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환자를 위한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치유의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음식물 싱크대에서 즉시처리!

분쇄·분해 후 하수관 배출! 7일 무료사용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 싱크대 일체형으로 분쇄, 분해 후 하수관 바로 배출

(주)편한세상은 분쇄 후 2차미생물 분해 소멸방식으로 하수관으로 바로 배출되는 유일한 합법제품으로 100% 국산 친환경제품입니다. - 올바른 제품 선택만이 소비자의 피해를 줄입니다. -

• 환경부 (2013-91)인증, KC인증 된 합법제품

(주)편한세상은 환경부인증(2013-91호)은 물론 KC인증과 전자파인증까지 받은 가장 이상적인 합법제품입니다. - 환경부 및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자세한 확인 가능합니다. -

• KBS 등 방송3사에서 보도 된 합법제품

(주)편한세상은 이미 KBS 등 방송3사 뉴스에서 검증 보도된 합법제품입니다.

• 사용 및 유지관리가 아주 편리한 제품입니다.

(주)편한세상은 작은 소음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처리시간 30초 이내로 아주 낮은 전기료(월 500원 미만)와 자체 세척기능이 탁월한 제품입니다.

• 완벽한 내구성과 고장률 "0%" 철저한 A/S

(주)편한세상은 AC모터와 특수 합금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탈부착이 가능한 제품으로 전국 어디든 이진설치에도 자유로운 제품입니다.

• 주방 환경(위생) 획기적 변신

(주)편한세상은 그동안 주방에 모자란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세균, 냄새, 벌레, 귀찮고 번거로움을 한번에 해결함으로써 가정주방의 위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드립니다.



100% 국산 합법제품!

가정용 | 업소용

무료체험 7일
무이자10개월

음식물처리기 선두 기업
(주)편한세상

구입 및 문의 061) 245-2457 전국 설치가능